

김별아의 문학과 삶



## 지남력(指南力)에 대하여

계유정난의 공신으로 세조의 총애를 받고 예종 때 영의정에까지 오른 흥윤성은 '성종 실록' 출기에 기록된 바대로 '거칠고 광방한 태도와 교만하고 제 마음대로 날뛰는 형상'을 지닌 자였다. 탐욕스럽고 오만한 자가 권력을 가지니 그 위세가 더없이 주약해 시집과 노복을 함부로 갈로 배는가 하면 본처에게 자식이 없다고 양반가의 딸을 겁탈해 안내로 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궁의 '연려실기술'에 실린 윤근수가 지은 수필 '월정민필'을 보면, 흥윤성이 대체 무슨 '빡'을 믿고 그리도 기세등등하게 날뛰었는가를 알 수 있다. 흥윤성이 역사를 기록하는 춘추관의 정일품 관직을 맡고 있을 때 '시정기(時政記)'를 보다가 자신의 죄악이 낭자하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연히 본이 나질릴 뿐이지만 역사의 기록은 임금도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것이었으니 천하에 무도한 흥윤성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때 흥윤성은 세근덕거리다 말고 콧방귀를 끼며 큰소리를 쳤다.

"흥! 왜종이에 쓴 '강목' 주희가 지은 통감강목도 즐겨 보지 않는데, 하물며 '동국통감'(성종 때 편찬한 역사책)이겠느냐? 네 멋대로 적어보아라. 누가 즐겨 동국(東國: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것이라!"

포악무도한 흥윤성이 든든한 '빡'으로 여겼던 것은 함께 손에 괴를 물려 공범이 된 세조뿐이 아니었다. 흥윤성은 다른 아닌 세상 사람들의 '망각'을 믿었던 것이다. 아무리 욕하고, 비웃고, 지탄해도 세월이 흐르면 남는 것은 무엇을 해먹었다는 베타자리 이름과 그 자위를 이용해 알뜰히 쟁기 재물뿐이라는 예전이 흥윤성을 더욱 뻔뻔하게 만든 것이다.

후세는 역사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했는지 대충 알지 인정 '어떻게' 했는지는 모를 것이다! 그것이 흥윤성의, 그리고 그의 후예인 앙인들의 자신감이었다.

나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대학입학학력고사 필수과목으로 '국사'를 배운 세대다. 물론 내가 배운 국사 교과서 속의 역사는 대개 정권의 임박에 맞추어 부분 혹은 전체가 왜곡되거나 날조된 것이었다.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실현하고 있다는 '한국식 민주주의'와 '정의사회 구현'의 구현내가 학살과 폭압의 선연한 피비린내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하지만 학력고사를 치기 위해 그냥 역사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후 대학에 입학해 은폐

되고 조작된 역사의 이면에 숨은 '진짜 역사'를 찾겠노라는 열망을 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노라면 흥윤성의 큰소리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사' 과목이 사회탐구영역의 선택과목 중 하나가 된 후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점차로 떨어져 2012년 수학능력평가에서는 전체 응시생의 7%만이 국사를 선택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역사를 배운다. 의미보다는 재미를 좇아 최소한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역사 아닌 역사를 학습한다. 역사를 읽지 않기에 역사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사를 헤쳐놓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배우고 의회 깨끗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위해서다.

정신기능장애의 상태와 정도를 파악하는 여러 조건 중에 지남력(指南力)이라는 항목이 있다. 지남력은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어느 대

종가요의 노랫말처럼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점에서 깨어난 것인지 막 잠들려는 것인지를 헷갈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극장에 와 있다고 착각하고, 자식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아이처럼 행동한다면 '지남력장애'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신의학계에서는 지남력장애의 원인으로 뇌의 생리적 기능에 의해 심한 갈등상태나 정신적 혼란상태, 그리고 지나친 무관심을 꼽는다.

역사를 모르고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남력을 잊고 사는 일이나 진배없다. 지금이 언제이고,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몰라 갈팡질팡 혼란 수밖에 없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뜻으로 강물로 뛰어드는 하늘뿐의 취들처럼 자멸하기 십상이다. 그리하여 역사는 반복된다니 안타까운 격언이 실현된다.

무직의 난신 흥윤성의 최후는 좀 시시하다. 그는 쉰한 살에 밤에 종기를 앓다가 죽었다. 백 년의 짐반을 거우 넘겨 살기 위해 그토록 폐암을 부린 인간의 어리석음이 허망하고 가소롭다. 이처럼 역사는 때로 교훈보다 위로를 주기도 한다. <소설가>

## 종교칼럼



조발그니  
목포가톨릭대 교수·신부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이다.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던 과목까지 모두 시험을 봄다. 또 중간고사를 봄 경우 기말고사마저 망치면 무척 우울해진다.

내가 있는 학교는 이번 주에 기말고사를 본다. 아마 이 원고가 나갈 즈음에는 모두 방학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봄다. 또 중간고사를 봄 경우 기말고사마저 망치면 무척 우울해진다.

내가 있는 학교는 이번 주에 기말고사를 본다. 아마 이 원고가 나갈 즈음에는 모두

경솔하거나 경망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는지, 너무 많은 부담을 주어 힘들게 하자는 않았는지 뉘우치고 돌아본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이다. 절대권력을 가진 그였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줄 아는 훌륭한 왕이었다. 뉘우침의 사건과 중 비리는 죄다 힘 있고, 돈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다. 잘 알면 법을 지켜야 하는데 알면 법을 피해 가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돈이 있으면 나눠서 함께 잘 살아야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마저 뺏으려 한다. 그 출발은 남보다 더 배웠기 때문이다.

학기는 마치면서 이는 것이 힘이지만, 이는 것이 능력이지만, 이는 것이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지만, 이는 것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겸손할 수 있는 용기를 줄 때 그는 아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학기는 학습을 해본다. 대학의 공부는 단순히 학점을 따는 공부, 장학금과 교환되는 공부, 앞으로 직장의 레벨을 정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학기는 마치면서 이는 것이 힘이지만, 이는

매학기 마지막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면접을 가서 왜 이곳에 지원했느냐 물으면 "남보다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나 자신도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그 교육활동이 단순히 자신에 도움이 되고 다시 권력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것, 배워서 남 주는 공부를 하라는 말을 한다.

많이 이는 것은 힘이지만 그 힘을 모여 함께 사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학기는 마치면 책상에 널려진 책을 다시 책장에 끌고는다. 한 학기 동안 페이미마다 커워져 적어두고 줄을 그었던 그 흔적은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킨다. 그렇게 다음 학기에 더 성장하여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학기는 마치면서 이는 것이 힘이지만, 이는

## 기고



이당재  
21세기 문화교육연구회장

꽃이 끝난 자리에 군락(群落)이 있음을 조록 일이 참으로 끝디갑다. 모처럼 아래와 여수시내에 나왔다가 가까운 오동도에 들렸다. 타트인 겨울은 바다에 하얀 포말을 가르는 모터보트의 질주가 장관이다. 역시 바다는 신선하고 아름답다. 방파제를 걷다 보니 난잡하게 버리고 간 쓰레기 한 무더기 가 눈에 띄었다. 4대 미항을 자랑하는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우리는 한참을 푸르고 앉아 버려진 상자에 종이를 풀어가며 이야기를 듣기보다 내 이야기를 쏟아내며 훈육하려 들지는 않았는지, 학생들 앞에서

## 일상의 삶이 아름다워야

침에 세수하고 화장실에 대사하고 이 닦고 웃을 차려입고 자동차를 타거나 길을 걷고 사람을 만나 일하니 집에 돌아온다.

이 일상의 삶에 기본적으로 예의와 질서를 지켜야 깨끗한 환경에서 서로 편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우리 주변의 무질서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골목길, 논밭두렁, 산과 바닷가가 운동 쓰레기 천지기 때문이다. 언젠가 신문에 짚음과 지성이 출렁이는 대학가 역시 축제가 끝난 교정의 잔디밭과 강의실이 버려진 쓰레기로 난장판이다. 대학의 지성이 이럴줄 알면 그 밖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18개 국립공원 쓰레기는 2300톤, 장마철 팔당댐에 떠내려 온 쓰레기가 1만여 톤이다. 자기 집안은 깨끗이 하는 사람들 이 밖에 나오면 아무 데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건 왜일까? 경제력을 못 따라가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산 좋고 물 좋은 여수시에 새들에게 푸른 지반을 더, 자주 애무산에 오르는 데 산 정상에도 쓰레기 투성이다. 몇 차례 즐기기도 했지만 주울 때 뿐 효과가 없었다. 궁리 끝에 광

고사에 맡겨 "산을 좋아하는 등산인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애무산 등산인"이라는 표지판을 세웠다. 그리고는 버려진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주어서 바로 옆 바위 위에 일반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두 무더기로 모아놓고 나뭇가지를 꺾어 둘레를 만들어 눈에 잘 띠게 해놓았다. "버린 사람들은 너희가 한번 보라"는 '전시용 쓰레기장'이었다. 담배꽁초는 같은 상표가 많은 것으로 봐 자주 오는 한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버리는 것으로 보였다. 2주 뒤 그 '전시용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내려오는 데 올라온 몇몇 사람들이 내가 쓰레기 담아오는 것을 보고 "수고하세요." 서로 인사를 하며 지나쳤다. 그 이후 애무산 정상은 비徼적 깨끗해졌다. 애무산에 자주 다니는 등산객들은 그 이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처음 오거나 자연보호 의식이 없는 영뚱한 사람들이 있어 답답한 마음이다.

이런 국민의식을 바로 고치려면 첫째, 교육이 중요하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어릴 일어나면 이를 개선해 벽장에 정리하고 방바닥을 쓸고 닦고, 저녁이면 마당을 쓸고 마루를 깨끗이 닦고 가재도구를 일상

적으로 정리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하루라도 친구들과 놀다가 안 하는 날은 밤상머리 교육이 길어졌다. 지금 생각해 봐도 아버지가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걸 나는 경험해서 안다. 나는 일상이 아름답지 못한 걸 평소 응급하지 않는 성미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가공권력이 매를 들어야 한다. 선진국 영국·미국·싱가포르가 본래부터 예의와 질서를 잘 지켰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 질서를 어겼던 사람들 손발을 묶어 체벌을 가했던 기구들이 지금도 성문 앞에 전시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또 이를 국가경찰이 시민의 무질서와 폭력에 가치없어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좀 더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의 경제력만 가지고는 선진문화국가는 되지 못한다. 우리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일상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한다. 요즘 헤이 해진 국민정신을 새 정부가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의와 질서를 지키자는 교육캠페인을 전개하고 강력히 단속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때를 놓치면 이 정부에서도 무질서한 사회에서 국민행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때를 놓지 않기 바란다.

영조는 그의 실용적인 유용지학(有用之學)을 개혁정책의 근본으로 삼았고, 규장각 건립으로 300년이나 앞선 놀재의 선진지 명을 현실화했다. 놀재가 현실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실학은 움트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폴리페셔는 현실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말로써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대다수는 본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서 항의하고 취소시킬려고 이 사이트를 찾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은 물론 114에도 문의해 보지만 그런 사이트의 실체를 찾지 못한다.

이 같은 신종 P2P사이트에 속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을까. 신종 P2P사이트는 정상적인 사이트와 달리 포털에서 검색되거나 동호회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등의 링크를 통해서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채워진 약관이 이용요금부과 안내가 한 줄 들어가 있지만, 회원가입

## 社說

## 빛고을문학관 건립 또다시 '허송세월'

광주시 '빛고을 문학관' 건립이 또다시 원점에서 맴돌게 됐다. 빛고을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가 19일 문학관 건립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던 명성예식장을 포함한 건립부지 안건을 '백지화'하고, 광주시에 전권을 맡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빛고을 문학관이 이처럼 3년 이상 걸돌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 광주시의 책임이 적지 않다. 부지 선정과정에서 단한차례의 공청회를 열지 않는 등 소통부재에, 주민구구식 행정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추진제를 구성뿐만 아니라 부지 선정, 콘텐츠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후보지 역시 폭넓게 물색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광주시가 추진위의 결론된 행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지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장마철, 재해취약지역 대비 철저히 해야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되면서 광주·전남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불과 침수 우려되는 위험지구가 200여 곳에 달하는데다 산사태 우려지역도 200곳이 넘는다고 한다.

광주시가 집계한 재해취약시설은 모두 593개소로, 이 가운데 동구 소태천·남계, 북구 장등, 광산구 연산·소촌1·고룡지구 등 150여 원을 들여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광산구 고룡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 49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195곳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율은 45%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태풍 덴빈·볼라벤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진도 의신천·창포지구 등 19곳은 우기 전에 복구가 완료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자치체 역시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취약지구를 살피는 등 위기 대응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無等鼓

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정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놀재처럼 폴리페셔로 존경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학시절 은사 중에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분이 계셨다. 활발한 사회활동 덕에 외부에는 좋은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실제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험편 없는 강의에 실망해했다.

국회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추진하면서 폴리페셔가 교수직을 버려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휴직 처리를 하면 꽤 괴롭게 본전이라 생각으로 폴리페셔의 길로 들어서는 교수들이 많았다.

민주통합당 박해자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해 국회에 진출하면서 23년째 간직해온 교수직을 내던져 '어글리 폴리페셔'들에게 경종을 울린 적이 있다. 박 의원의 사례가 더 이상 화제거리가 되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어글리 폴리페셔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해진다.

폴리페셔는 현실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말로써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대다수는 본인에게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세종 때 태어나 성종까지 6명의 임금을 모신 놀재 양성자(1415~1482)는 요즘 말로 치면 일종의 폴리페셔(Polipressor)였다. 대학에 해당하는 집현전 출신으로 관직에 진출해 현실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서를 지켜낸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내곁에 있는 시계'라고 신임했다. 폴리페셔는 그의 실용적인 유용지학(有用之學)을 개혁정책의 근본으로 삼았고, 규장각 건립으로 300년이나 앞선 놀재의 선진지 명을 현실화했다. 놀재가 현실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조선의 실학은